## 올해 남원 춘향제는 빛과 흥의 향연

제전위, 춘향제 기본계획 확정 남원시 일원 5월25일~29일 개최 광한루에 미디어파사드·LED 배 먹거리·공연 등 4가지 테마로

남원의 대표축제인 춘향제가 오는 5월 화려한 막을 열 계획이다.

남원시와 춘향제전위원회는 최근 축제 준비위 원회 회의를 갖고 '제93회 춘향제'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코로나19 등 각종 사회적 제한들이 풀리면서 예 전의 화려함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춘향 제는 5월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 간 남원시 일원 에서 개최된다. '민선 8기 첫 춘향제'라는 점에서 역대 축제보다 성대하고 화려하게 치러질 예정이

남원시는 춘향제를 통해 전통을 계승하고 민선 8기 시정 비전(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 원)을 기반으로 한 남원의 역동적 미래상과 시민 의 바람을 축제 전반에 담아낼 계획이다.

제93회 춘향제는 ▲전통과 첨단의 빛 ▲사랑과 낭만의 길 ▲먹거리와 국악의 흥 ▲공연과 체험의 맛 이라는 4개의 테마로 진행된다. 테마 별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기획되고 있어 기대가 높아지고 있

특히 이번 춘향제에서는 '빛'이 주목되고 있다. 광한루는 미디어파사드와 만나 화려하게 변신하



제93회 춘향제가 5월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 지난해 개최된 제92회 춘향제 모습.

〈남원시 제공〉

고 요천에는 첨단 조명으로 반짝이는 별과 달이 하 늘을 밝힌다. 강 위에는 연인들의 사랑을 담은 수 백 개의 LED 종이배가 띄워질 예정이다.

요천 벚꽃길과 둔치 주변에는 꽃등, 갈대 조명 이 설치된다. 개막식 등에서는 불꽃과 드론이 펼 치는 야광쇼가 진행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춘향제의 테마는 전통

과 첨단의 빛에서 화려한 남원의 미래를, 사랑과 낭만의 길에서 시민의 화합을, 먹거리와 국악의 흥에서 남원의 문화를, 공연과 체험의 멋에서 남 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메시지 를 담았다"며 "그 어느 해보다 멋진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정읍천·정읍역 관광 개발' 의견 청취

#### 주민설명회 개최

정읍시가 정읍천과 정읍역을 연계하는 '관광 핫 플레이스 조성사업'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에 나섰

정읍시는 최근 연지아트홀에서 이학수 시장과 관계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과 관계 단체 등이 참석 한 가운데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사업 추진에 앞서 시민들에 게 추진 배경과 기본구상,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함 으로써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의 의견을 수 렴해 적극 반영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시는 용역보고회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미로분수 설치사업 등을 설명한 후 이에 대 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시민들의 의견 중에서는 화장실과 주차장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과 정읍역 지하차도 복개 후 그 공간에서 상시적인 문화예술 공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또 당일치기로 즐기고 가는 것보다 도시재생사 업으로 추진 중인 게스트하우스 및 캡슐호텔 등과 연계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 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방문을 연계해 소상공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정읍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정읍만의 색깔을 지닌 차별화된 사업이 될 수 있도 록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시는 제시된 의견의 관계 부서와 면밀히 검토한 후 세부 추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정읍시민 과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개선함은 물론 관광객 체 류시간 연장으로 소비지출에 따른 부가가치를 확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 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건당 44만원

#### 정읍시, 165개 농가 지원

정읍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가공·취급자의 인증비를 지원한다.

친환경 농가는 매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 정 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시 신청료 와 관리비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시는 고품질 유기·무농약 농산물을 생산하는 165개 농가에 건당 44만원의 인증 비용 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35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농가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 비용을 늘렸다.

또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유기 가공식품과 취 급자에 대한 인증 비용도 부담한다.

유기 가공식품과 취급자 인증 지원은 실소요 비 용의 85% 수준으로 유기 가공식품의 인증비는 건 당 100만원, 취급자 인증비는 건당 55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희망 농가는 증빙자료 사본과 신청서를 관할 행 정기관에 내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이 친환경 농업의 안정적인 기반 구축과 경영비 절감 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고창 초교 입학생에 책가방 구입비 지원

1인 10만원…수시 신청 접수

고창군이 올해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 225명에 게 책가방 구입비로 10만원씩을 지원한다.

고창군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생 책가방 구입비 지원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올해 대상자는 225명으로, 군은 1인당 10만원 씩 총 225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턴 책가방 구입비 지원금을 고창사 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급 대상에 해당하나 아직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수시 신청 접수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

심덕섭 고창군수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우리 아이들이 책가방에 꿈과 희망을 가득 담아 즐거운 마음으로 활기찬 학교생활을 하길 바란다"며 "앞 으로도 다양한 교육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고창군 '찾아가는 동학혁명 정신선양' 교육



#### 14개 읍•면 1500명 대상

고창군이 다음달 10일까지 '찾아가는 동학농민 혁명 정신선양교육'을 진행한다. 〈사진〉

사단법인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진윤식) 주관으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14개 읍 면 마을 이장, 부녀회장, 주민자치 위원, 새마을지 도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단체장 등 읍·면 핵심 리더 15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권위자인 김양식 교수(청

주대)와 신영우 명예교수(충북대)를 초빙해 동학 농민혁명과 관련된 지역의 이야기를 더한 이해하 기 쉬운 눈높이 맞춤형 강의로 진행한다.

교육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배경과 전개 과 정 ▲고창지역 유적지와 참여자 ▲동학농민혁명 의 역사적 가치 등을 배울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동학농민혁명의 자주와 평등 의 숭고한 정신이 곧 고창의 정신이며, 동학농민 혁명의 성지로서 정신 선양사업을 확대해 나가겠 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정읍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 다음달 15일까지 참여업체 모집

정읍시가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음 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활성화를 위한 위생 전문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영업주가 원하는 등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면 점수에 따라 위 생 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소비자들 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과 식중독 발생 예방 등 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됐다.

이를 위해 시는 3월15일까지 음식점 위생 등급 제 컨설팅 지원에 참여할 식품접객업소(일반 휴 게음식점, 제과점) 8개소를 모집한다.

시는 선정된 희망업소에 대해 위생적 취급기준, 사전 모의평가, 신청 절차 안내 등 위생 등급 지정 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진 단과 해법을 제공할 예정이다.

위생 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2년간 ▲지정서・ 표지판 교부 ▲지정기간 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출입·검사 면제 ▲위생용품 지원 등의 혜택을 받 을 수 있다.



컨설팅 희망업소는 정읍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정읍시보건소 보 건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지역 내 음식점의 위생 수준 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지역 음식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데크의 भाष्णयभा!"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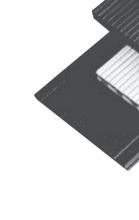
# 논슬립 디자인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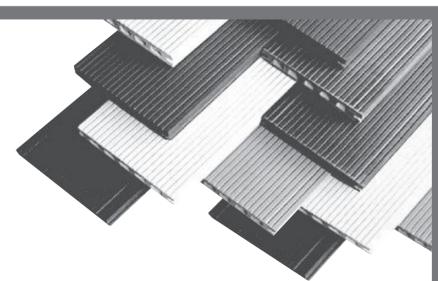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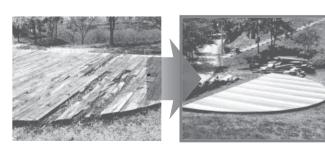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